



‘모두가 해결사’ KIA 신개념 토털 야구

KIA의 선두 질주. 그 중심에는 누구나 해결사로 변신하는 ‘토털 야구’가 있다.

KIA는 8일 수원 kt위즈파크서 열린 2017 타이거뱅크 KBO리그 kt전을 20-8로 승리했다. KIA 타선은 장단 20안타(4홈런)를 몰아치며 20득점으로 kt 마운드를 폭격했다.

KIA의 최근 상승세는 하늘을 찌를 기세다. KIA는 최근 10경기서 9승1패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사흘간 창원 NC전을 ‘스윙패’ 하며 NC와 공동 선두에 머물렀던 KIA다. 그러나 최근 10경기의 호조를 앞세워 NC를 다시 2위로 밀어냈다. 승차는 어느덧 5.5경기까지 벌어졌다.

비결은 단연 타격이다. KIA는 최근 10경기 중 9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투수진이 9실점으로만 경기를 막아내도 승리한다는 의미다. 같은

최근 10경기 주전 10명 중 7명이 4할대 타율

김기태 감독조차 “우리 선수 대단하다” 감탄

기간 136득점 팀 타율은 4할1푼5厘에 달한다.

특히 지난주 6경기부터 이번 주 중 SK와 3연전 첫 두 경기까지 무려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이 부문 KBO리그 종전 기록은 2015년 NC와 롯데가 세웠던 다섯 경기. 그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

KIA의 최근 10경기 팀 타율은 4할1푼5厘다. 리그 평균이 3할9푼4厘임을 감안하면, 평균보다 무려 1할 이상 높은 것이다. KIA를 제외한 9개 구단의 같은 기간 평균 타율은 2할9푼9厘로 떨어진다. KIA 혼자 10구단의 평균을 1푼 이상 올린 것이다.

더 놀라운 건 누구 한 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KIA는 같

은 기간 23홈런을 때려냈다. 리그 홈런 1위 SK도 이 기간 20홈런을 때려냈다. SK도 경기당 2홈런 꼴로 기염을 토하고 있지만 KIA에 미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KIA의 홈런 분포는 철저히 나누어져 있다. 로저 베나디나와 나지완, 이범호가 최근 10경기서 4홈런을 쏟아냈다. 4번타자 최형우도 3홈런으로 보조를 맞췄다. 사실상 4번타자가 네 명 포진한 셈이다. 포수 김민식과 대타 서동욱도 2홈런으로 힘을 보탤다.

굳이 장타로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도 KIA 타선의 응집력은 돋보인다. 최근 10경기서 30타석 이상 들어선 KIA 선수는 총 10명. 이 중 이

명기(.386)와 김민식(.303), 안치홍(.333)을 제외한 일곱 명이 4할 이상의 고타율을 자랑한다. 최형우는 5할5푼이라는 비정상적인 타격감을 뽐내고 있다. 이를 필두로 베나디나(.450), 김주찬(.425), 나지완(.419), 이범호(.417) 역시 식을 줄 모른다.

KIA는 안치홍이 열구리 부상으로 1군에서 빠져있고, 김선빈도 발목 통증으로 세 경기 연속 선발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서동욱과 최원준(8경기 .563)이 그 자리를 잘 메우고 있다. ‘베스트’는 물론 벤치 멤버들의 타격감까지 좋다. 김기태 KIA 감독은 8일 경기를 마친 후 “우리 선수들이지만 정말 대단하다”라고 감탄했다.

KIA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토털 야구로 전반기 선두 자리를 확정했다. 흔히 ‘잘 되는 집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

신태용 감독 “나이는 숫자에 불과…이동국도 뽑힐 수 있어”

“나이는 문제없다. 이동국도 대표팀에 뽑힐 수 있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차기 대표팀 구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태용 감독은 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1라운드 수원과 제주전을 찾아 “90분간 땀을 흘리는 체력과 기량, 그리고 대표팀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마음만 있다면 이동국도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태용 감독은 다음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9차전 이란전에 나설 K리그 육석 가리기 위해 이날 경기장을 찾았다.

그는 전날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전을 보기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도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찾은 신태용 감독은 “선수들의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말할 수 없다”며 “이란전에 맞춰 최고의 선수들을 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월드컵 진출 여부가 이란전에 달려 있는 만큼 대표팀에 현신할 수 있는 선수들



로 명단을 꾸리겠다”고 강조했다.

신태용 감독은 “이동국, 염기훈 등 나이가 많다고 대표팀에 뽑히지 말라는 법은 없다. 모든 선

수들이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는 이길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90분 내내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신력과 팀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묶어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태용 감독은 해외파 선수 발탁에 대해선 “현재 유럽리그가 프리시즌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출전여부를 체크 할 것이고 코칭스태프 구성이 완료된다면 본격적으로 몸 상태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태용 감독은 자신을 보좌할 새 코칭스태프 선임을 오는 12일 전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보미, ‘금호타이어 오픈’ 데뷔 4년 만에

연장 끝에 첫 우승…평산산 공동 4위 그쳐

박보미(23·하이원리조트)가 데뷔 4년 만에 첫 우승을 연장 승부에 결정지었다.

박보미는 9일 중국 웨이하이시 웨이하이 포인트 골프 리조트(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총상금 5억원) 최종일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8언더파 210타를 기록한 박보미는 이자후(24·유진케미칼)와 함께 공동 선두로 대회를 마친 뒤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이날 마지막 18번 홀(파4)을 남겨두고 이자후에 1타 뒤졌던 박보미는 약 4m 거리의 천금같은 버디를 성공시키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이어 연장 첫 홀에서 파를 기록하며 버디를 한 이자후를 제치고 감격적인 데뷔 첫 우승을 확정했다.

2014년에 1부 투어에 데뷔한 박보미는 그 동안 우승은커녕 ‘톱10’조차 들지 못했다. 올 시즌에도 12

개 대회에 출전해 5차례나 컷 탈락했을 정도로 주목 받지 못했다.

하지만 KLPGA 투어 상위 랭커들이 대거 불참한 이번 대회에서 박보미는 2라운드 7언더 버디를 하는 등 우승 전망을 밝혔다. 최종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우승과 함께 2019년까지 시드 걱정 없이 투어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올 시즌 1부 투어에 데뷔한 이자후는 박보미와 마찬가지로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지만 연장에서 파 퍼팅을 놓치며 어렵게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이들 연속 선두를 달렸던 평산산은 중국에서 열린 KLPGA 주관 대회에서 중국 선수로서 첫 정상 등극을 노렸지만 보기 4개와 버디 3개로 1타를 잃고 4언더파 공동 4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이로써 한국 선수들은 KLPGA가 해외 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한 대회에서 모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기쁜 흥을 징크스를 이어갔다.

뉴스

김세영, LPGA ‘손베리 크릭’ 3위 마감

김세영(24·미래에셋)이 최종일 맹타를 휘두르며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설 대회에서 시즌 5번째 ‘톱5’를 달성했다.

김세영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오나이다 손베리 크릭 오나이다(파72·6624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손베리 크릭 LPGA 클래식’(총상금 200만 달러) 최종일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7개로 9언더파 63타

를 몰아쳤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68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캐서린 커크(호주.22언더파 266타)에 2타 뒤진 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2위와 6타 차 단독 선두로 출발한 커크는 2타를 줄이는데 그쳤지만 2위에 1타 차로 쫓기는 상황에서 마지막 18번 홀(파4) 버디에 성공하며 대회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

뉴스

‘침묵의 월요일’ 코리안리거, 전반기 최종전 일제히 무안타

추신수·김현수·황재균·최지만, 2볼넷 부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타자. 가장 왼쪽부터 추신수, 김현수, 황재균, 최지만 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타자들이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일제히 침묵했다.

올스타 휴식기를 앞두고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펼쳐진 10일(한국시간)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를 비롯해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최지만(26·뉴욕 양키스) 등 한국인 타자 4명이

나란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LA 에인절스와 홈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한 추신수는 4차례 타석에 들어섰지만 두 차례 삼진을 당하는 등 무안타에 그쳤다.

이로써 추신수는 타율 0.250(288타수 72안타) 12홈런 42타점 7도루로 전반기를 마쳤다.

미네소타 트윈스와 원정경기에서 7번 좌익수로 나선 김현수는 볼넷으로 한 차례 출루에 성공했을 뿐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다.

김현수의 시즌 타율은 종전 0.235에서 0.229(118타수 27안타)로 떨어졌다.

황재균도 마이애미 말린스와 홈경기에서 주전으로 나서며 빅리그 10번째 경기를 소화했지만 병살타를 기록하는 등 3타수 무안타로 소독이 없었다.

황재균은 2할대 타율을 유지하는데 실패하며 0.194(31타수 6안타)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한국인 타자 막내 최지만 역시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마지막 타석 볼넷을 얻었을 뿐 앞선 3타석에서 모두 범타로 물러났다.

빅리그 복귀 후 2경기 연속 홈런포를 때려냈던 최지만은 2경기 연속 방망이가 침묵하며 타율 0.182(11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뉴스

정혜림, 亞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00m허들 금메달…13초16

런던세계육상선수권 출전권 획득…신기록 수립 다짐

한국 여자 허들의 간판스타 정혜림(30·광주시청)이 제22회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100m 허들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혜림은 9일(한국시간) 인도 부비네스와르 카랑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여자 100m 허들 결승에서 13초1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날 우승을 차지한 정혜림은 금메달과 함께 2017런던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00m 허들 출전권을

획득했다.

정혜림은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매우 기쁘다. 목표했던 한국 신기록 수립을 못해서 아쉬움이 크지만 런던세계선수권대회에서 꼭 새로운 한국기록 수립에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남자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21·서천군청)은 남자 높이뛰기 결승에서 2m30을 넘으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우상혁은 중국의 장궈웨이와 치



열한 각축전 끝에 2m30을 마지막 3차시기에 성공하며, 2m28에 그친 장궈웨이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우상혁은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런던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의 전망을 한층 밝게 했다.

뉴스

KEB하나은행, 전체

1순위 ‘이사벨 해리슨’

여자프로농구 KEB하나은행이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센터 이사벨 해리슨을 선발했다.

KEB하나은행은 1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2017~2018 WKBL 외국인선수 선발회에서 전체 1순위로 이사벨 해리슨을 뽑았다.

192cm 신장의 이사벨 해리슨은 WNBA 샌안토니오 소속으로 이번 시즌 평균 10.6점 5.2리바운드 1.4어시스트 1블록 0.9스틸을 기록했다.

KDB생명은 2순위에서 주얼 로이드(178cm)를 선발했다. 로이드의 포지션은 가드다. 노르담대학교를 졸업하고 2015년 전체 1순위로 WNBA 시애틀에 지명돼 그 해 신인상을 수상했다. 올 시즌에도 17경기에서 16.9점 3.8리바운드 3.4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3순위에서 포워드 카일라 쏘튼(185cm)을 뽑았다. 쏘튼은 2016~2017 KEB하나은행 교체선수로 WKBL을 경험한 바 있다.

WNBA 댈러스 워전스에서 활약 중인 카일라 쏘튼은 올 시즌 18경기에서 평균 16.6분을 뛰며 7.6점 3.4리바운드를 기록했다.

4순위 KB스타즈는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 센터 다미리스 다타스(193cm)를 선택했고, 5순위 우리은행은 지난 시즌 팀을 우승으로 이끈 가드 셰키나 스트리클랜드(188cm)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다.

역순으로 진행된 2라운드 1순위에서 우리은행은 포워드 티아나 하킨스(192cm)를 선택했다. 워싱턴 미스틱스에서 뛰었던 티아나 하킨스는 올 시즌 7.9점 4.4리바운드의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KB스타즈는 가드 모니크 커리(182cm)를 뽑았다. 평균 두 자리 수 득점(10.6점) 4.2리바운드 2.0어시스트를 기록중인 커리는 KB의 선택을 받아 5년 연속 WKBL 무대를 누리게 됐다.

뉴스